

멕시코 원주민의 자치(autonomía)를 위한 운동: 사빠띠스따운동을 중심으로*

김윤경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김윤경 (2013), 멕시코 원주민의 자치(autonomía)를 위한 운동: 사빠띠스따운동을 중심으로.

초 록 이 논문은 사빠띠스따운동을 중심으로 오늘날 원주민의 자치운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운동이 종래의 원주민 자치운동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빠띠스따의 자치운동은 RAP과 ANIIPA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사빠띠스따의 자치운동은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배타적이 되었고, 특히 2003년 이후에는 사빠띠스따 자치지역을 중심으로 자치를 실현했다. 궁극적으로 사빠띠스따들이 꿈꾸는 것은 “하나의 세계” 안에 “또 다른 세계”들이 공존하는 세상이다. 멕시코 정부는 원주민의 세상을 의미하는 이러한 “또 다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500여 년 간 계속되어 온 식민성을 거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빠띠스따들의 자치 운동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1994년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원주민의 자치운동을 계승하여 원주민의 자치를 지역 차원에서 실현하고 유지하면서 종래의 식민적 지배질서를 철저히 거부하는 것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점이다.

핵심어 사빠띠스따, 원주민 운동, 자치, 복수종족 지역자치운동(RAP), 산 안드레스 협정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I. 서론

최근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 하나가 원주민의 자치(autonomía)이다. 멕시코의 사빠피스마 운동에서 에콰도르의 CONAIE 운동과 수막 까우사이(sumak kawsay)운동, 그리고 페루와 볼리비아의 원주민 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주민 운동이 자치를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식민 시대에 스페인의 식민 정부가 ‘원주민 공화국(Repúblicas de Indios)’ 개념으로 원주민에게 자치정부를 허용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원주민의 자치 요구는 식민 시대부터 시작된 오래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유엔의 원주민 인권선언과 ILO 협정 169조 같은 국제 문건들이 발표되면서 그러한 요구들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원주민의 자치 요구가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에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는 이유는 자치라는 문제가 종속과 억압과 소외라는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치요구는 불평등한 권력구조 속에서 의사 결정과정에서 배제되고 정치와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집단에서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원주민이다. 정복 이후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주민은 땅에 대한 권리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문화적 권리도 송두리째 빼앗긴 채 살았다. 이제 원주민들은 그러한 삶을 거부하고 자치를 요구하며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려 하고 있다. 그러기에 자치를 위한 투쟁은 식민적 지배질서라는 좀 더 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치에 대한 요구의 역사가 긴 만큼 그것에 대한 논쟁도 다양하다. 자치의 주체와 의미, 범위와 한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치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자치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자치의 의미는 자치의 행사가 국가라는 틀 내에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국민국가라는 틀 속에서의 자치일 경우, “자유방임적인(dejar hacer)” 자치와 “정치적 법적 체제로서의 자치”로 나뉜다(Hector Díaz-Polanco 1997). “자유방임적인 자치”는 원주민 같은 종족집단들이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관습을 유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정치적 법적 체제로서의 자치”는 “국민국가 내에서 진정한 정치적 집단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지역정부에 토대를 둔 자치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을 통한 탈중앙집권화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 두 경우는 모두 국가라는 틀 속에 있기 때문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측면이 강하다.

반면에, 자치/자율을 국가라는 틀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안토니오 네그리이다. 1977년에 이탈리아에서 ‘아우또노미아’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탈리아 사회를 뒤흔들었던 네그리는 자율이라는 개념을 “권력에 대한 저항의지를 전제로 한 다중의 창조적 능동”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조정환 2003, 5). 그를 비롯한 자율주의적 맑스주의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자율은 하나의 투쟁 형태와 투쟁 방법이며, 계급의 독립이자 해방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사회적 주체가 출현하는 것, 그리고 해방되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자율이다(Massimo Mondesi 2010, 99). 여기서 정치적·사회적 주체가 바로 ‘다중’이다. 네그리의 개념인 이 다중은 종래의 계급적인 틀을 벗어난 것으로 민중이나 대중과는 다른 개념이며, 독자적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함께 모인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원주민도, 학생도, 여성도, 동성애자도 다 포함될 수 있다. 자율주의 맑스주의자들은 자율의 문제를 국가라는 틀을 깨고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체를 계급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다중’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자율에 대한 논의의 폭을 한층 확대시켰다.

이러한 시각은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도 설득력을 갖는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자율의 문제를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관계의 차원으로만 볼 경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종족과 인종이 섞여 있고, 과거 500여 년 간의 식민 질서가 잔존해있는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식민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적인 틀만으로는 라틴아메리카의 복잡한 질서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에서 벌

어지고 있는 자율을 위한 투쟁은 권력에 대한 저항과 더불어 탈 식민이라는 틀에서 접근해야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치에 대한 탈식민적 시각이 주목을 끈다. 최근 라틴아메리카 학자들 사이에서는 자치를 탈식민화를 위한 투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González et al. 2010). 그들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자치를 위한 투쟁은 과거에 억압받고 종속적인 위치에 있던 원주민들이 드디어 정치적 사회적 주체로 등장하여, 자신들의 의사결정권 같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치의 패러다임은 신자유주의정부들이 추진하는 다문화주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패러다임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처럼 자치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최근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의 자치를 위한 투쟁들이 단순히 “자유방임적인 자치”나 탈중앙집권화 과정의 일부임을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치를 위한 투쟁 자체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원주민의 자기 결정권과 법적인 인정을 요구함으로써 식민적 지배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그 시발점에 사빠피스파 운동이 있다. 원주민의 자치운동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사빠피스파운동은 그 이후 라틴아메리카 곳곳의 원주민 투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빠피스파운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빠피스파들이 주장한 자치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실현한 자치의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사빠피스파들이 추구한 자치의 내용이 무엇이며, 종래의 자치운동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그것이 탈식민화의 투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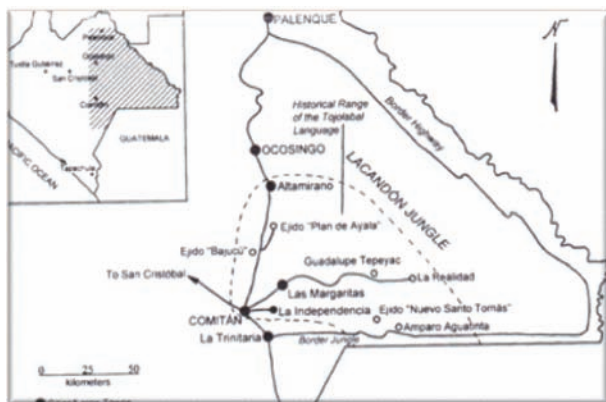
그럼, 먼저 사빠피스파운동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이전에 치아빠스에서 일어난 자치운동과 사빠피스파 붐기 이후에 이루어진 자치운동들을 살펴보고, 어떤 양상을 띠고 있었는지를 분석해보자.

II. 사빠띠스타운동 이전의 자치운동과 다 종족적 지역자치

1. 토호라발족(Tjolabal) 자치운동

사빠띠스타운동 이전에 치아빠스에서 벌어진 자치운동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토호라발족 자치운동이다. 1980년대 말에 있었던 토호라발족 자치운동은 치아빠스 자치투쟁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후에 벌어진 치아빠스 자치운동에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다. 1930년대 카르테나스 대통령의 토지개혁으로 에히도가 분배되면서 토대가 마련된 자치투쟁은 1970년대 조직화 과정을 통해서 발전했고 1980년대 말에 가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토호라발족 지역에서 자치운동이 일어났는가? 우선 토호라발족 지역에서 자치운동이 벌어지게 된 배경을 보면, 토호라발족이 겪은 독특한 역사과정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고지대 지역인 로스 알토스(Los Altos)의 초칠족(Tzotzil), 첼탈족(Tzeltal) 원주민과는 달리, 북부의 토호라발족은 비교적 고립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 1940년대까지도 토호라발족은 국가의 별다른 개입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195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1960-70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다양한 제도들이 토호라발족의 권력 형태들을 대체했다. 특히 국가가 에히도(Ejido) 최고 책임자들을 파견하면서 종래의 원주민 권력



〈토호라발 지역〉

(Rus, Hernández Castillo and Mattiace 2003, 110)

체제가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에히도 최고 책임자들의 막강한 힘이 원주민 원로들과 우두머리들의 권위를 대체해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토호라발족의 이주가 포함되어 있었다. 토호라발족은 1950년대부터 원래 거주지에서 라캉돈(Lacandón) 밀림지대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그래서 토호라발족의 공동체 구조가 새로이 주한 밀림지대에서는 원래 정착지에서와는 다르게 약화되고 재정비되었으며, 주로 에히도 공동체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¹⁾ 그리하여 토호라발족은 개별 공동체보다는 에히도를 기반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토호라발 사람들은 토호라발족이라는 정체성보다는 까나다 토호라발(Cañada Tojolabal) 에히도 사람 혹은 후스토 시에라(Justo Sierra) 에히도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더 강했다(Mattiace 2003, 102). 그런 만큼 에히도 공동체들 간의 갈등도 많이 발생했다. 그러기에 토호라발 지역 원주민 지도자들은 에히도의 경계를 넘어 토호라발족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원주민의 자치를 회복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토호라발족 공동체 자치 권력의 약화에 교회도 한몫했다. 기독교 교리는 토호라발족의 전통적인 문화와 정체성과 충돌을 일으켰다. 해방신학과 프로테스탄티즘에 심취한 원주민 공동체의 일부 젊은이들은 공동체 원로들의 권력이 갖는 보수성에 반기를 들었다. 교리문답교사들이 원주민들의 농업 관련 전통적인 의례들을 거행하는 것을 반대하자, 60-70년대 공동체들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젊은이들과 전통의례들을 고수하려는 연장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Hernández Cruz 2000, 167). 이러한 내부 갈등은 결국 세대 간의 단절로 이어졌다. 게다가, 1980년대 이후 프로테스탄티즘이 토호라발 지역의 상당수 주민들에게 급속히 전파되면서 공동체 내부에서는 가톨릭 교도들과 개신교도들 간의 갈등이 심각해졌다.²⁾ 프로테스탄트들의 재산을

1) 일반적으로 에히도 공동체는 30가족에서 150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에히도 의회가 시에 보낼 대표와 다른 지방 관리들을 선출했다. 가벼운 범죄들은 시로 보내지 않고 에히도 자체 내에서 해결했다.

물수하고 그들을 공동체에서 추방하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원주민 공동체 주민들의 분열을 심화시켰다.

이처럼 에히도 중심의 다양한 공동체들이 형성되고 그러한 공동체들 간에 충돌이 벌어지는가 하면, 원주민의 전통과 권위에 대한 교회의 공격으로 공동체 내부의 갈등이 심해지자, 1985년에 드디어 ‘또호라발족의 에히도 연합(Unión de Ejidos y Pueblos Tojolabales, 이하 UEPT)’이 결성되었다. 이 조직은 정부가 원주민운동을 체제내로 통합하려고 만든 원주민 최고위원회들(Consejos Supremos Indígenas)³중 하나인 또호라발 위원회에서 갈라져 나온 ‘민주적인’ 교사 집단과, ‘농업노동자, 농민 독립 연맹(Central Independiente de Obreros Agrícolas y Campesinos, 이하 CIOAC)’⁴에서 활동하고 있던 일부 활동가들이 만든 것이었다. 가장 결속력 있었던 이 조직의 목적은 또호라발 정부를 만들어서 과거에 누렸던 원주민 권력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국가나 교회가 개입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 조직은 또호라발 지역의 원주민을 통일하고 또호라발족 원주민 스스로가 통치하는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것, 외부인들의 간섭이 없는 또호라발족의 독자적인 삶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이 조직은 원주민들이 시 차원의 정치 권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또호라발 영토에 대한 원주민의 통제권을 요구했다.

이렇게 형성된 UEPT가 자치를 향한 첫 걸음으로 내린 결정은 “북부의 조연자들”, 즉 국가나 교회가 파견한 외부인들을 만장일치로 거부하는 것이었다. UEPT의 구성원 대부분은 “북부의 조연자들”의 지배를 받으며 성장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러한 외부인들의 존재에 대해 늘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원주민들의 독자적인 삶을 원했다. 그러기에 UEPT는 결성되자마

-
- 2) 치아빠스주에서 개신교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요인과 갈등 양상에 관해서는 김윤경(2011) 참조.
 - 3) 이 위원회들의 형성에 관해서는 Díaz-Polanco(1992); Hernández Castillo(2001); Medina(1977) 참조.
 - 4) CIOAC는 친원주민적이라기 보다는 친농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의 밑바탕에는 원주민들에 대한 믿음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었다. 그들은 원주민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는 기본 원칙 아래 스스로 정부 체제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랐다. 그들은 그것을 스페인어로 “autonomía”, 원주민 언어로는 “또호라발 권력”, 또는 “진정한 권력”을 의미하는 “Ja’ yipa tojol-ab’aly”라고 말했다(Hernández Cruz 2000, 171).

하지만 또호라발 지역에서 UEPT가 자치정부를 구성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다. 그리하여 UEPT는 CIOAC에 속해 있는 다른 에히도 연합들과 동맹을 맺는 전략을 취했다. 이러한 동맹을 통한 “또호라발 정부(Gobierno Tojolabal)” 건설이라는 목적 아래 모인 에히도들은 세 개의 에히도 연합 소속이었다.⁵⁾ 이 세 에히도 연합에 속해 있었던 에히도들의 대표들과 공동체 대표들이 “또호라발의 재통일”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달성하려는 모임에 모였다. 다양한 회의들이 소집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누에보 멕시코 에히도(Nuevo México Ejido)에서 열린 회의였다.

이렇게 역사적인 장소에서 소집된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상임의회(Asamblea Permanente)를 만들고 그것을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 상임의회를 또호라발 자치의 최고 권위기구로 기능하게 하고, 그것을 토대로 또호라발의 통일을 이룩하여 “또호라발의 위대한 권력”을 회복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작성하고 에히도 주민들에게 회람했다. 1986년 이러한 제안서의 내용을 추진할 인물로 안토니오 에르난데스 크루스(Antonio Hernández Cruz)를 임명하고, 1987년 또호라발 위원회(Tojolabal Council)를 설립했다. 또호라발족의 연장자들이 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주도했는데, 거기에는 또호라발 자치 정부를 지지하는 주술사, 치료사 같은 에히도 공동체의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뿐 아니라 에히도 최고 책임자와 시 관리들까지도 참

5) 세 개의 에히도 연합에는 또호라발 민중 에히도 연합(Ejido Union of Tojolab'al Peoples), k'achil Yaj b'ej 에히도 연합(k'achil Yaj b'ej Union of Ejido), 토지와 자유 에히도 연합(Land and Freedom Ejido Union)이 있다.

여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또호라발 정부의 의사결정구조의 방식이 민주적이었다는 점이다. 1989년 라스 마르가리타스(Las Margaritas) 무니시뻬오의 베라끄루스 에히도(Veracruz Ejido)에서 열린 회의에서 의사결정 방식을 “거미줄”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것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을 수직적인 방식이 아니라 거미줄처럼 원형의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했다. 예를 들어, “거미줄”의 맨 바깥 원에 있는 사람들인 “전달자들”은 또호라발 공동체들 간의 소통을 책임지면서 합의된 사항들을 공동체들로 전달하거나 공동체에서 위원회로 가져오기도 했으며, 위원회의 총 책임자는 조정자로서 또호라발 지도자 집단과 함께 에히도 연합들 간에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호라발 정부와 국가의 상호작용을 돕는 역할을 했다 (Hernández Cruz 2000, 175).

이렇게 볼 때, 흥미로운 것은 또호라발 자치정부가 국가의 존재를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사실 또호라발 자치정부는 원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면서, 사법부를 세우고 자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정부기구들과 교회와 정당들의 활동을 막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삼았다. 예를 들어, 사법부의 경우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예전에는 시로 보내서 국가 권력을 통해 해결했던 것을 이제는 또호라발 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내렸다. 또호라발 위원회가 외부권력을 대신함으로써 또호라발족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또호라발 자치정부의 활동은 무니시뻬오 차원의 권력에 또호라발족이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또호라발 영토에 대한 사회적 통제권을 요구하는 수준이었다. 또호라발 정부는 부자들의 정부인 종래의 무니시뻬오 정부에 반대하여 그와 병행하는 정부로 기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은 아직은 원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면서 국가의 재구성을 주장한다거나 지역적 차원에서 자치를 실현하는 단계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그런데, 토호라발 원주민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해주었던 토호라발 자치정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설립된 지 3년만인 1989년에 막을 내렸다. 비록 기간은 짧았지만 토호라발 자치정부는 토호라발 지역 원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토호라발족 자치운동은 그들에게 원주민 자치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보여 주었으며, 치아빠스 자치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

2. 복수종족 지역 자치운동(las Regiones Autónomas Pluriétnicas)과 ANIPA(la Asamblea Nacional Indígena por la Autonomía)

원주민의 자치운동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된 것은 그로부터 5년 후 1994년 1월에 사빠띠스파 봉기가 일어나면서부터였다. 사빠띠스파 혁명군과 정부의 충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주민 조직들이 하나로 뭉친 것이다. 1994년 1월 13일부터 시작해서 약 한 달 만인 2월 16일에 280개의 원주민 농민 조직들이 모여서 원주민 농민 조직들의 국가 위원회(Consejo Estatal de Organizaciones Indígenas y Campesinas de Chiapas, 이하 CEOIC)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7월에 주지사 선거를 치르면서 CEOIC는 친 PRI 성향의 집단과 원주민의 자치를 지향하는 조직들로 이루어진 친 PRD 성향의 집단으로 분열되었다. 그 후 친 원주민적인 집단이 CEOIC 내에서 계속 힘을 얻어나갔다.

그러다가 원주민의 자치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10월 12일에 CEOIC의 뒤를 이은 치아빠스 민중 민주회의(la Asamblea Democrática de Pueblo Chiapas, 이하 AEDPCH)가 치아빠스 주 북부에서 7개의 사실상(de hecho)⁶⁾의 복수종족 자치지역(las Regiones Autónomas Pluriétnicas, 이하 RAP)을 선언하면서부터였다. CEOIC의 다양한 원주민 조직들이 토지가 아니라 자치를 위한 투쟁에 가담했다. 이제야 비로소 토지나 생산이 아니라 원주민의 자치가 원주민 운동의 주된 요구사항이 된 것이다. RAP은 “토호라발 정부”를 하나의 모델로 삼았다. 그 후 한 달 여 만인 11월 20일에 CEOIC는 국립원주민연구소(Instituto

6) 법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라는 의미에서 사실상(de facto)라는 말을 자치 앞에 붙이고 있다.

Nacional de Indígena, 이하 INI)의 시설물을 접수해서 거기에서 복수 종족 자치지역 정부를 설립했다. 그 이듬해 1월21일에는 복수 종족 자치지역 총회(Consejo general)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집행부(Consejo Ejecutivo)가 선출되었다(Ruiz Hernández y Burguete Cal y Mayor 2003, 282).

이렇게 형성된 RAP의 정부구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종래 질서와의 단절을 모색하려 했다는 것이다. RAP가 선언되고 난 후 각 공동체들에서는 “공동체 의원들(los Parlamentarios Comunitarios)”이 임명되었다. 이들은 300개가 넘는 공동체에서 임명된 사람들로 그 수가 600명이 넘었다. 이들의 첫 번째 주요 임무는 헌법 개혁안을 만들고 그것을 입법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RAP의 제한의회에 참여하여 24개 원주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대표를 임명하여 집행부를 구성했다. 2월 26일 산 끄리스토팔 델 라스 까사스의 뿌리메로 데 에네로(Primero de Enero) 공동체에서 600명 이상의 “공동체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집행부 구성원들이 선출되었다. 이렇게 선출된 대표들은 12개 위원회⁷⁾의 조정자가 되었다. RAP 정부는 공동체와 무니시피오에서 활동하는 이러한 위원회들을 통해서 기능했다. 이처럼 RAP의 정부구조는 새로운 자치정부의 구성을 통해 종래의 질서와 단절하면서 원주민의 이해관계를 무시하는 권위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종래의 정부에 도전하려고 했다.

하지만 RAP이 진정으로 추구했던 것은 종래의 국가와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아니었다. RAP의 자치는 국가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일부가 되는 것, 즉 통합을 의미했다. RAP에서 원주민 투쟁은 국가의 구조 내에서 정치적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다만 RAP이 생각했던 국가는 종래의 국가가 아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RAP은 선거도 민주주의를 향한 방

7) 이러한 위원회에는 정치와 입법 위원회, 경제와 사회발전 위원회, 정의와 인권 위원회, 교육과 문화위원회, 생태관관위원회, 운송위원회, 안전보장위원회, 연장자를 위한 위원회, 재정위원회, 여성위원회, 토지와 영토위원회, 자연자원과 환경을 위한 위원회가 있었다.

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다. RAP은 국가의 재구성을 제안하면서,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배타적인 동질적인 현재의 국가 체제를 민주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복수종족 국가 체제로 바꾸려고 했다.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RAP 지지자들은 협상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RAP의 대표들은 협상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든 PRI든 대화를 통해서 그들과 협상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 그러한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했다. 그도 그럴 것이 RAP 안에는 친PRI, 친PRD, 가톨릭적, 개신교적인 성향의 다양한 원주민 조직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원주민이라는 것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RAP의 자치는 단순히 탈 중앙집권화(decentralización)로서의 자치가 아니었다. RAP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자치로서, 중앙 정부와 무니시피오 정부 사이에 지역 정부라는 또 하나의 차원을 추가하여, 지역정부가 정치, 행정, 경제, 문화, 교육, 사법, 자원관리 등의 영역에서 권한을 가지고자 했다. 자치를 정식화하는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헤CTOR 디아스 폴랑코(Hector Díaz-Polanco)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복수종족 국가가 가능할까 아닌가는 국민 국가의 틀 속에서 자치적인 정부들을 확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으며, 국민적인 통일성을 깨지 않고 복수종족성을 인정하는 것이 자치체의 다양성을 정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Díaz-Polanco, 1996). 이처럼 RAP의 지지자들은 이 운동이 분리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재편된 국가 내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조화를 증진시킴으로써 통일성과 국민통합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ANIPA, 1996). 따라서 RAP의 자치는 원주민의 “국민화(nacionalización)”, 즉 원주민이 국민에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포괄적인 자치”를 의미했다(Margarito Ruiz Hernández y Araceli Burguete Cal y Mayor, 2003, 283).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의미의 자치가 1995년 2월에 처음 열린 전국 원주민 자치회의(la Asamblea Nacional Indígena por la Autonomía, 이하 ANIPA)의 지배적인 경향이었으며, RAP이 실현하고자 하는 원주민의 자

치를 법적으로 개혁하여 입법화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ANIPA였다는 점이다. RAP은 차아빠스 원주민의 독자적인 운동이 아니라 전국적인 원주민 운동의 맥락 안에서 움직이고 있던 운동이었다. ANIPA는 사빠띠스따들이 봉기를 일으킨 후 1994년 말부터 1995년 초까지 멕시코 전역에서 원주민 운동 내에서 원주민의 자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자는 공감대 아래 형성된 전국적인 회의였다.⁸⁾ 1995년에서 1998년까지 총 7번이 열린 ANIPA는 지방의 원주민 조직들을 원주민의 자치를 위한 운동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원주민들이 자치 문제를 입법화하는 것을 놓고 자유롭게 논의하기 위한 장이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ANIPA가 원주민의 자치를 위해 중요하다고 제기한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원주민의 자기결정권(*la libre determinación*)의 인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역 자치체제의 확립이었다. 우선 전자의 경우, ANIPA는 원주민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적인 관습인 “용도와 관습(*usos y costumbres*)”과 그것을 바탕으로 원주민의 자치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하여 두 번째로, 원주민의 자치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인 틀로서 지역 자치체제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특히 제1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제시했다. ANIPA 제1차 회의에서 제시된 것에 따르면, 지역 자치체제는 세 가지 차원, 즉 지역과 공동체와 무니시피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각각의 차원에서 자치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영토와 자연자원과 환경의 이용과 개발과 통제와 보호를 규제하는 것이다(Ruiz Hernández 2000, 33-35).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지역 자치 체제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ANIPA에 따르면, 지역 자치 체제는 복수 종족적이며 체제 통합적이다. 제2차 회의에 따르면, 우선 지역 자치 체제는 지역의 사회문화적 구성이 복수 종족

8) ANIPA 첫 회의는 멕시코 시티에서 열렸으며, 이후의 회의는 소노라의 야끼 원주민 영토, 오아하카, 차아빠스, 게레로 등 멕시코 전역을 돌아다니며 열렸다.

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에서는 복수 종족적이어야 한다. 원주민과 비원주민이 같이 사는 곳에서는 자치 정부에 양쪽의 대표를 모두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치 체제는 원주민과 비원주민 모두 권리와 기회에서 동등하게 해서 양쪽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치 체제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치 지역에서 대표를 선출하여 지방 차원뿐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의 의회로 보내야 한다. 이것은 대다수가 원주민인 민중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지역 차원의 정부를 추가하는 것과 더불어 ANIPA가 정치적 탈 중앙집권화의 자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원주민을 비원주민과 더불어 국가 질서 속으로 완전히 통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강조할 점은 RAP이나 ANIPA가 주장하는 자치가 국가 속으로의 통합을 지향한다고 해서 그것이 종래의 학자들이 말하는 의미의 탈 중앙 집권적인 운동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운동들은 국가를 상정하지만 여기서 국가란 백인 중심의 종래의 국가가 아니라 다양한 인종이 인정받는 복수 종족 복수 국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RAP이나 ANIPA는 국가의 재구성을 계속 주장했다. 사실 원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집단으로서의 자치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종래의 국가 질서, 즉 식민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정부는 이러한 원주민의 자치요구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빠띠스파 봉기 이후 RAP과 더불어 전국적인 차원에서 원주민의 자치 운동을 이끌었던 ANIPA는 산 안드레스 협정 이후 5차, 6차 회의를 열어서 이 협정의 완전한 실현을 요구했으며, 1998년에는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제7차 회의를 열었다. RAP도 ANIPA에 참여하는 가운데, 1996년에는 RAP의 최고 기구인 총회가 새로운 집행부를 임명하고, 1997년에는 지도부를 바꾸면서 변화를 시도했다. 게다가,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그램과 원주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들 개발하여 원주민의 자치와 권리문제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사빠띠스파 봉기 직후 RAP과 ANIPA를 중심으로 전개된 원주민의 자치운동

은 산 안드레스 협정과 COCOPA 법 이후 그 동력을 많이 상실했다. 여태까지 원주민 자치운동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거기에 협력했던 사빠띠스파들이 산 안드레스 협정을 이끌면서 운동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사빠띠스파들은 1996년 산 안드레스 협정 이후 자치지역을 선포하고 자치를 구체화하는 노력을 보이면서 원주민의 자치운동을 한 단계 도약시켰다. 이제 사빠띠스파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III. 사빠띠스파의 자치 선언과 산 안드레스 협정

1. 1995년 1월 제3차 선언과 자치 무니시피오들의 형성

사실, 사빠띠스파들은 1994년 봉기 시작부터 원주민의 자치를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 사빠띠스파들이 자치운동을 맨 처음 시작한 것은 1995년 1월 제3차 선언문을 발표하면서였다. 사빠띠스파들이 94년 3월 산 크리스토팔 델 라스 까사스 시 광장에 있는 대성당에서 정부와 첫 회담을 가질 때 잠깐 원주민의 자치 문제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3차 선언문을 발표할 때까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적은 없었다. 실제로 1994년 제1차 선언에 이어 6월 제2차 선언에 이르기까지 사빠띠스파들은 원주민이라는 단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각각의 선언문에는 “민중” 혹은 “시민사회”만이 언급되어 있었을 뿐이다. 사빠띠스파들은 처음에는 전략적으로 운동의 전국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억압받는 민중들을 위한 민주주의와 자유와 정의를 위한 투쟁으로 규정지었다(마르코스 외 2004, 55).

그런데 1994년 12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사빠띠스파의 거점인 까냐다(Cañada) 지역과 동쪽의 라강돈 정글 지역을 군사력을 동원해 포위하려고 했다. 정부에 실망한 사빠띠스파들은 정부의 무력행사에 저항하면서 29개의 새 원주민 무니시피오를 선포하고 그것들을 사빠띠스파들의 통제 하에 두었다. 이러한 조치는 3월 정부와의 “대성당 회담” 이후 여러 원주민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대표

들을 새로 임명하는 등, 새로운 “자치 무니시뻬오들”을 만들려고 했던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조치는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원주민의 자치운동을 더욱더 고무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그러는 가운데 1995년 1월 사빠띠스따 혁명군이 제3차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서 사빠띠스따들은 멕시코 헌법에 원주민 지역의 자치 법령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원주민의 자치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들은 원주민의 자치와 시민권을 인정하고 원주민 집단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제3차선언문). 그러기 위해서 멕시코 1917년 헌법 39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치정부의 권한을 토대로 ‘국가(patria)’를 관리하는 권한을 연방정부에게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부터 사빠띠스따들은 원주민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원주민의 자치권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1년 후에 발표된 제4차 선언문에서도 사빠띠스따들은 사빠띠스따 혁명군이 원주민의 희망과 심상으로부터 탄생했음을 명시하면서 이러한 기초를 이어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언이 선언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1995년 무니시뻬오 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는데, 사빠띠스따 마을들과 공동체들 80% 이상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빠띠스따 혁명군 통제 하에 있는 무니시뻬오들은 자신들의 반란지역에서 당국자들을 스스로 선출하면서 사실상의 자치를 선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정부는 1995년 10월부터 다시 사빠띠스따와 대화를 하려고 직접 협상 테이블로 나와 앉았다. 이미 1994년 4월부터 시작된 이 회담은 이때 결정적인 국면에 들어섰다. 사빠띠스따 혁명군과 정부의 대표들이 여섯 개 그룹으로 나뉘서 “원주민의 권리와 문화”에 관한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구나 이 협상은 이전 선언문들에서와는 달리 원주민의 자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그런 점에서 이 협상은 사빠띠스따 자치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제 산안드레스 협정을 맺게 되는 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사빠띠스따들이 주장한 자치의 의미를 이해해보도록 하자.

2. 원주민 포럼과 산 안드레스 협정(Acuerdos de San Andrés)

우선, 산 안드레스 회담의 논의 과정을 보면, 1995년 10월에 시작해서 약 세 차례에 걸쳐 사빠띠스따와 정부, 양쪽 대표들이 모였다. 1995년 10월 17일 그 첫 모임에서 사빠띠스따 혁명군과 정부의 대표들은 6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협상을 벌였다. 양쪽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대표들을 초대할 수 있었다. 사빠띠스따들은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중도파에서 좌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300명 넘게 이 회담에 초대했다. 한편 정부는 주로 INI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첫 번째 그룹은 네 가지 주제 중 맨 첫 번째 주제인 “원주민의 권리와 문화”에 관해서 토론했고, 두 번째 그룹은 원주민에 대한 법의 보장에 관해서, 세 번째 그룹은 정치적 대표성과 참여의 문제, 네 번째 그룹은 원주민 여성들의 권리와 문화에 관해서 토론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룹은 통신수단에 대한 접근의 문제와 원주민 문화의 장려와 발전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다.

그런데 이 회담에 응한 사빠띠스따와 정부 양측의 태도를 보면 이 회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알 수 있다. 첫 번째 회담은 사뭇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11월에 두 번째 회담이 열릴 때부터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첫 번째 회담이 끝나고 이틀 후에 정부가 사빠띠스따 혁명군 사령관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회담에서는 정부가 INI 출신 원주민 문제 전문가들을 초대하지 않았다. 그들이 원주민 문제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정부는 원주민 문제를 다루는 이 회담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사빠띠스따 혁명군은 이 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1996년 1월 3일에서 8일까지 전국 원주민 포럼(Fórum Nacional de Indígena)을 개최했다. 사빠띠스따 혁명군은 정부에 압력을 가하려고 회담 기간 동안에 이러한 포럼을 개최하여 대중 동원이라는 방법을 썼던 것이다. 이 포럼은 사빠띠스따 사령관들(CCRI)이 조직했으며, COCOPA(Comisión de Concordia y Pacificación)와 CONAI(Comisión Nacional de

Intermediación⁹⁾가 포럼을 개최하는 데 필요한 안전문제와 세부 사항들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멕시코 전역과 북미에서 온 500여 명의 원주민과 학생들, 인권운동가들, 비정부조직들의 대표들, 학자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 포럼에 참여했다. 사빠띠스따 혁명군은 멕시코뿐 아니라 전 세계의 사빠띠스따 지지자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함으로써 정부가 사빠띠스따운동을 치아빠스의 문제로 한정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빠띠스따들은 이 포럼을 통해서 회담에 임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 회담에서 좀 더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원주민 포럼에서 합의된 내용이 ANIPA에서 제시된 요구사항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상 원주민 포럼은 여러 차례에 걸쳐 ANIPA에서 논의된 내용의 결정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의 첫 번째 것은 원주민 공동체와 자치에 관한 것으로, 포럼 참가자들은 공동체, 무니시피오, 지역 차원에서의 자치와 그 안에서의 원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했다. 여기서 자치는 멕시코 국민의 통합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치였으며, 자치권의 행사에는 영토와 자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현행 법 체제 안에서 원주민의 법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문제였다. 포럼 참가자들은 국가가 원주민 법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헌법적인 차원에서 법의 다원주의를 주장했다. 마지막은 개인적인 권리와 집단권의 관계에 관한 문제였다. 포럼 참가자들은 자치권, 영토권 같은 원주민의 집단적인 권리는 개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원주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문제는 특히 여성의 권리와 문화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포럼에 참가한 원주민 여성들은 원주민 공동체에서 여성의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

9) COCOPA(Comisión de Concordia y Pacificación)는 1995년 3월 정부와 사빠띠스따 혁명군 간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설되었으며, 6명의 연방 상원의원과 PRI, PAN, PRD, PT 네 개 정당이 대표들 8명의 의원과 치아빠스 주의회와 행정부 각각의 대표 각각 1명씩 총 16명으로 구성되었다. CONAI(Comisión Nacional de Intermediación)는 1994년 2월 산 크리스토발 대성당에서 회담이 시작되었을 때 창설되었다.

결혼 같은 특정한 “전통과 관습”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좀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원주민 법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다 같이 동의했다.

이렇게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사빠띠스파들은 1월 정부와의 회담에 참여했다. 1월 18일에 최종 협상안이 마련되었으나 원주민 공동체들의 회담을 거치고 90%의 찬성을 얻고 나서야 드디어 2월 16일에 산 안드레스 협정문의 형태로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이 협정문은 원주민과 원주민의 자결권의 법적 인정과 원주민 문화의 인정 같은, 원주민 포럼에서 합의된 내용을 많이 반영했다. 게다가 원주민 문제가 단순히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차별의 문제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원주민과 국가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예를 들어, 협정문은 국가와 원주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들을 규정하고, “새로운 관계의 맥락”을 위해 필요한 것이 국가의 새로운 정치, 원주민들의 참여, 원주민들의 경제적 조건의 개선, 원주민들을 새로운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 등임을 명시했다 (Hernández Navarro and Vera Herrera, 1998, 56-58).

하지만 산 안드레스 협정은 사빠띠스파들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었다. 이 협정은 원주민 포럼에서 합의된 내용을 크게 반영하면서도 사안별로 한계를 지었다. 사빠띠스파들은 산 안드레스 협정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끝났다(Full Stop)”라는 문건에서 산 안드레스 협정은 원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들이 현 협상 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 협정의 내용이 원주민의 열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했지만, 최종 목표를 향한 의미심장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원주민 포럼에서 합의된 내용 중에서 산 안드레스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자치의 차원에 관한 것이다. 양측은 원주민의 자치라는 맥락에서 원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 문제는 자치의 차원이었다. 어느 수준까지의 자치를 인정하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원주민 포럼에서 요구된 지역 차원의 자치가

산 안드레스 협정에서는 빠졌다. 산 안드레스 협정에서는 공동체와 무니시삐오 차원에서의 자치만이 언급되었다. 정부 측은 지역 차원의 자치는 국가가 통제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에 지역차원의 자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으며, 결국 협정문에서도 그 부분은 빠지게 되었다. 멕시코의 법 체제에 대한 원주민의 접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원주민의 관습과 전통을 존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원주민 법을 법 체제 속에 포함하는 법적 다원주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원주민의 전통적인 관습법을 인정하는 것이 원주민의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할 뿐이었다.

이렇게 볼 때 산 안드레스 협정은 원주민 포럼에서 합의된 내용에서 한 걸음 후퇴한 협정이었다. 산 안드레스 협정은 원주민의 자치는 인정했지만 그 수준을 지역을 제외한 공동체와 무니시삐오에 한정해버렸다. 그리고 법적 다원주의를 거부함으로써 원주민의 법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산 안드레스 협정은 원주민의 자치 요구를 최소한으로 인정하고 종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주민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를 가진 산 안드레스 협정조차도 세디요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협정이 조인되고 나서 정부와 사빠티스마 혁명군은 COCOPA에게 협정 안을 토대로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11월에 일명 COCOPA법이 대통령에게 제시되었다. 이 법안을 검토한 세디요는 협정 안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요구하고 비토권을 행사했다. 세디요는 자치에 관한 조항이 원주민을 국민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연자원을 원주민들의 통제 하에 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자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원주민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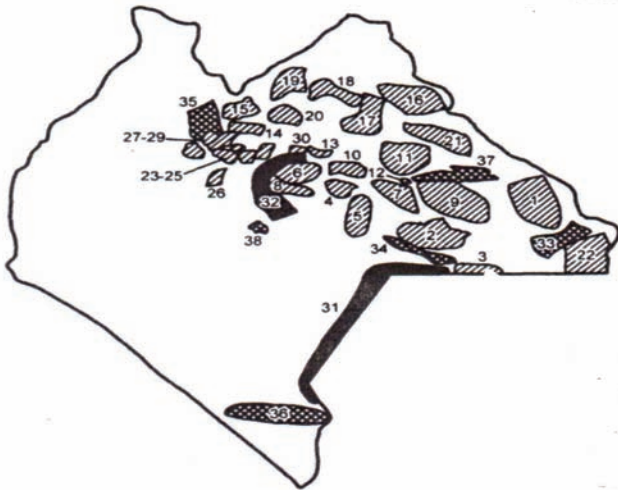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빠티스마들은 크게 실망했다. 그리하여 1997년부터 사빠티스마들은 본격적으로 사실상의 자치정부를 건설하면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이제 사빠티스마들이 자치정부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IV. 사빠띠스따 자치의 실현

1. 자치정부들의 형성

사빠띠스따들은 치아빠스 라깡돈 밀립지대뿐 아니라 과테말라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마르께스 데 꼬미야스(Marqués de Comillas)지역, 보칠(Bochil), 시모호벨(Simojovel), 엘 보스께(El Bosque) 등을 포함하는 북부지역, 또호라발 지역, 고지대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빠띠스따 자치정부를 건설해나갔다. 자치정부 건설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영토의 경계를 정하는 일이었다. 치아빠스 전체 111개 무니시뻬오 중에 70개의 무니시뻬오에 사빠띠스따 자치 무니시뻬오들이 있었는데, 몇 개의 자치 무니시뻬오들이 모여서 하나의 자치지역이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1997년 9월 28일-29일에 수립된 Tsots Choj 자치지역의 경우, 오흐싱고(Ocosingo), 오흐축(Oxchuc), 차날(Chanal), 우이스탄(Huiztán), 아마떼낭고 델 바예(Amatenango del Valle), 떼네하빠(Tenejapa), 산 크리스토팔(San Cristóbal) 무니시뻬오 등에 있는 공동체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1998년 4월에 성립된 토지와 자유(Tierra y Libertad) 자치지역은 라스 마리가리따스(Las Margaritas), 라 트리니타리아(La Trinitaria), 라 인데 뻬덴시아(La Independencia), 프론테라 꼬말라빠(Frontera Comalapa), 토지와 자유(Tierra y Libertad)의 무니시뻬오들이 모여서 이루어졌다.

이처럼 다양한 자치지역에 자치정부들이 수립되었는데, 그 양상과 수준은 지역에 따라 달랐다. 하지만 그 과정은 일반적으로 자치 선언 후 영토의 경계를 정하고 자치정부 당국자들을 임명하고 정부를 조직하고 정부 건물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우선, 사빠띠스따들은 자치를 선언하고 나서 종래의 정부의 당국자들을 몰아내고 자치정부의 당국자들 혹은 자치 시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하거나 임명하는 절차를 밟았다. 선출된 새 자치정부 당국자들은 종래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1995년에 자치를 선언한 “자유인 산 후안(San Juan de la Libertad)” 자치 무니시뻬오의 경우, 그해 12월부터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원주민의 “용도와 관습”에 의해 선출된 아구스틴 알바레스



〈1994-2003 치아빠스의 자치무니시뻬오들과 지역들〉

- 1-30: 사빠띠스파 혁명군 무니시뻬오들과 자치지역들
 - 31: “토지와 자유” 자치지역
 - 32: “Tsots Choj” 자치지역
 - 33-38: 복수종족 자치지역(RAP)
- (Rus, Aída Hernández and Mattiace 2003)

고메스(Agustín Alvarez Gómez)가 무니시뻬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Arturo Lomelí González, 2000, 231). 그때부터 종래의 선거로 선출된 권력과 관습법에 따라 선출된 권력, 이 두 개의 권력이 공존했는데, 적어도 자치 무니시뻬오들에서는 후자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자유의 산 후안” 무니시뻬오에서는 PRI측 당국자가 무니시뻬오 건물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이렇게 형성된 자치정부는 공고화의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 단계에서는 자치정부가 자체 법을 가지고 관할지역을 관리하고 통제했다. 이 단계에서 자치정부의 중요한 기능들 중 하나는 법의 제공이었다. 그리하여 자치정부는 자치지역 내의 농업 갈등들을 해결하거나 법에 대한 원주민의 접근성을 높여주었다. 법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던 원주민들에게 법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자치정부는 원주민 공동체들 간에 혹은 원주민 개개인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원주민의 “용도와 관습”에 따라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예를 들어, “토지와 자유” 자치지역의 대표들은 관할지역의 여러 무니시빠오들을 방문하여 공동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주었다. 자체 감옥을 운영하여 사빠띠스파 법을 어긴 사람들을 거기에서 감금하기도 했다. 뿔로(Polhó) 자치 위원회의 경우, 자치 무니시빠오의 당국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이 위원회는 최고 행정당국으로서 소위원회들을 조직하여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했다(Burguete Cal y Mayor 2003, 211).

하지만 이러한 자치정부 수립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정부는 무력을 동원하여 사빠띠스파 자치지역에서 형성된 자치정부를 파괴하고 자치 무니시빠오들을 해체하려고 했다. 예를 들어, 1998년 4월 11일 “리카르도 플로레스 마곤(Ricardo Flores Magón) 자치 무니시빠오가 “재조직”을 선언하자 주정부는 이 반란 무니시빠오들을 “해체” 하려고 공격을 개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공격을 도왔던 것이 준군사조직들이었다. 1994년 이후 치아빠스에는 적어도 13개의 준군사조직들이 만들어져서 요소요소에 배치되었다. 이러한 준군사조직들은 자치 무니시빠오의 시민에게 끊임없이 폭력을 가하면서 자치 질서를 위협했다. 이러한 예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바로 1997년 12월에 뿔로 자치 무니시빠오에서 일어난 악테알(Acctéal) 사건이다. 뿔로 자치 무니시빠오의 악테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준군사조직의 군인들이 사빠띠스파들로 오인한 32명의 원주민 여성과 13명의 원주민 남성을 무참히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여성 중에는 임신한 여성도 끼여 있었다. 이 사건은 정부가 사빠띠스파들의 자치운동을 저지하려고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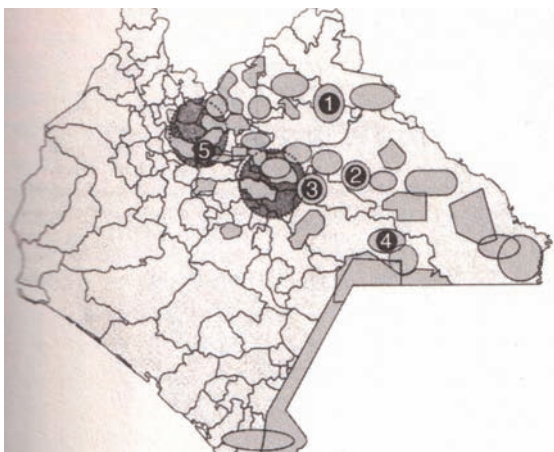
이처럼, 사빠띠스파들의 자치운동이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에 직면하자 사빠띠스파들은 여기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한편, 정부에게 산 안드레스 협정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1997년 9월 111개 원주민 공동체 대표들이 치아빠스를 출발해서 멕시코시티로 향하는 대행진을 벌이는데, 1998년에는 원주민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하여 이듬해 국제적인 차원의 국민투표가 조직되어서 멕시코 인 300만 명의 찬성을 이끌어

났다. 2년 뒤인 2001년에는 “대지의 빛깔을 띤 사람들의 행진(La Marcha del Color de la Tierra)”이 치아빠스에서 멕시코시티까지 또 한 차례 이루어지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빠띠스따들은 COCOPA법이 의회에서 비준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2000년에 대통령이 된 폭스도 이 법의 개정을 요구했고, 실제로 의회에서 통과된 법은 원안과는 많이 다른 것이었다. 결정적인 것은 사빠띠스따들을 비롯하여 원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원주민의 자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것은 원주민 포럼에서 합의된 내용은 물론이고 산 안드레스 협정의 내용에서도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사빠띠스따들이 이뤄놓은 성과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것이었다. 충격에 휩싸인 사빠띠스따들은 그 후 몇 년간 “전략적인 침묵”을 해야 했다.

2. 사빠띠스따 자치지역(Regiones Autónomas Zapatistas, RAZ)의 재정비와 까라콜(Caracol)의 형성

2003년 8월 초 정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깨달은 사빠띠스따들은 자치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치지역을 재정비했다. “아구아스칼리엔테스의 죽음”을 선언하고 그 다음날 새로운 것 즉, “까라콜”의 탄생을 알렸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사빠띠스따 자치운동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작업이었다. 사빠띠스따들은 정부와의 어떠한 타협이나 협상도 거부한 채 자치지역을 재정비하여 그들만의 자치체제를 수립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종래의 사빠띠스따들의 모임장소인 아구아스칼리엔테스를 사빠띠스따 원주민 공동체의 자치 실현을 위한 까라콜로 바꾸었다. 산 안드레스 협정에 실망하고 나아가 COCOPA법까지 실현이 불가능해지자, 사빠띠스따들은 원주민의 자치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그것을 사빠띠스따 자치지역 내에서 직접 실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선포된 까라콜은 5개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 토호라발족, 첼팔족, 마메족 사빠띠스따들의 라레알리다드 까라콜(Caracol de La



〈사빠띠스따 자치지역의 5개의 까라꼴〉

1. 로베르토 바리오스 까라꼴 2. 라 가르우차 까라꼴 3. 모렐리아 까라꼴 4. 라 레알리다드 까라꼴 5. 오벤틱 까라꼴

(John Ross 2006)

Realidad), 첼탈족, 초칠족, 또호라발족 사빠띠스따들의 모렐리아 까라꼴 (Caracol de Morelia), 첼탈족 사빠띠스따들의 라 가르우차 카라콜(Caracol de la Garrucha), 출족, 소깨족, 첼탈족 사빠띠스따들의 로베르토 바리오스 까라꼴 (Caracol de Roberto Barrios), 초칠족과 첼탈족 사빠띠스따들의 오벤틱 까라꼴 (Caracol de Oventik)이 있었다. 이러한 까라꼴들은 각 지역의 행정, 교육, 의료의 중심지로서 사빠띠스따 자치지역을 관리 운영했다.

까라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선정위원회(Junta de Buen Gobierno)”이다. 사빠띠스따들은 종래의 정부를 “나쁜 정부”로 규정짓고,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까라꼴에다 “좋은 정부”라는 의미의 선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사빠띠스따들은 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자치지역의 전체 행정을 이끌어가고 무니시삐오들을 관리했다. 선정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사빠띠스따 자치지역의 무니시삐오들에서 선출된 2-3명의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그 구성원은 자발적으로 15일마다 교대근무를 했고 임기는 3년이였다(Estrada Saavedra 2007, 539-541). 선정위원회 위원들은 특별한 보수를 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오벤딕 까라폴의 선정위원회 사무실〉

필자 촬영(2007. 4. 9)

15일 정도만 까라폴에 머물러 있었고, 게다가 그들이 까라폴에 머무는 동안 그들을 대신해서 공동체가 그들의 가정을 돌봐주거나 토지를 경작하는 것도 도와주었기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다.

선정위원회 위원들의 임무는 까라폴 내의 병원, 학교, 상점 등을 운영하는 일뿐 아니라, 무니시삐오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무니시삐오들 간에 갈등이 벌어졌는데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논의를 거쳐서 해결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각각의 무니시삐오 공동체들에서 공동체가 정한 시간과 방법에 따라서 프로젝트나 공동체 작업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일과 사빠띠스마 자치지역 밖의 활동이나 일들에 사빠띠스마들이 참여하는 것을 승인하는 일, 무니시삐오들의 생산조합들이 생산해서 남는 것들을 모아들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무니시삐오들에 나눠주는 일 등 경제적인 분배도 선정위원회가 담당했다. 선정위원회는 사빠띠스마 자치지역의 중앙정부인 셈이다. 하지만 이 선정위원회는 상명하달식의 수직적인 정부가 아니라 각각의 자치 무니시삐오들을 조정하고 연결해주는 수평적인 정부였다.

이러한 선정위원회는 사빠띠스마 자치지역의 또 다른 차원의 통치기구인 원주민 비밀 혁명위원회(Comité Clandestino Revolucionario Indígena, CCRI)

의 감시를 받았다. 이것은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고, “복종하면서 통치한다 (gobernar obedeciendo)”는 사빠티스따의 원칙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비밀혁명위원회는 EZLN이 있는 모든 공동체들의 위원회에서 뽑힌 대표들로 이루어졌다. 이 대표들은 공동체에서나 무니시뻬오에서는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았으며, 봉기 날짜를 정하는 것 같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게릴라 운동을 이끌어나갔다. 이 위원회의 총사령부는 라 레알리다드에 있었고 70-8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Barmeyer 2009, 92).

이러한 까라폴의 자치와 민주주의는 자치 무니시뻬오 단위에서도 이루어졌다. 자치 무니시뻬오의 통치구조는 공동체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무니시뻬오 자치위원회의 대표들은 2년에 한 번씩 공동체 성원들이 선출했으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소환할 수 있었다. 무니시뻬오 자치위원회 위원들도 무보수로 일했으며, 위원회 일로 공동체를 떠나 있는 동안 공동체 성원들의 도움을 받아 밀빠를 경작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오벤딕 까라폴에 속해 있는 막달레나 델 라 빠스 무니시뻬오의 경우, 이 무니시뻬오는 11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그룹에서 1명을 대표로 선출하여 무니시뻬오 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위원회는 무니시뻬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논의하고 그것을 의결하는 기구로 기능했다. 그리고 각 그룹에서 선출된 3-4명은 무니시뻬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 즉 상점 운영, 순찰, 경비, 마을 관리 등등을 교대로 담당했다.

이러한 가운데 까라폴과 무니시뻬오의 자치활동에서 사빠티스따들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자치 프로젝트는 바로 의료와 교육이었다. 사빠티스따들은 이것이 원주민의 자치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중앙 정부의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은 채 의료와 교육 등에 관한 자치프로젝트들을 만들어서 시행해나갔다.

3. 자치 프로젝트들: 의료와 교육

먼저 의료 프로젝트를 보면, 1980년대 초부터 치아빠스에서는 이미 자치적

인 의료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약과 의료장비를 사거나 큰 병원에 갈 수 있는 돈을 모으는 수준이었다(Klein and Castro 2001). 원주민 공동체들은 정부의 의료서비스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원주민의 건강을 챙기려고 했다. 사실 정부는 원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빠피스파들이 봉기를 일으킬 즈음인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치아빠스 원주민 지역에서 의사는 만 명당 네 명 정도 밖에 없었다(Barmeyer 2009, 160).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우선 사빠피스파들은 의료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예방약을 마련하고 의료인을 훈련하고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995년 의료프로젝트의 시작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일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촌락에서 의료 브로모도르(promotor)를 뽑는 것이었다. 촌락들에서 선출된 브로모도르들은 의료 관련 워크샵이나 학교에 참석했으며, 거기에서 배운 의학 관련 지식들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의료 관련 학교에서는 원주민의 민간 약초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을 의료 브로모도르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켰다. 전통적인 약초에 관한 지식을 원주민 공동체들에 전달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예를 들어 첼말족이 사는 네 개의 반란 무니시피오에는 400명이 넘는 의료 포로모토르들이 있었다.

더 나아가 사빠피스파들은 까라폴과 무니시피오에 병원과 의학 관련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했다. 이러한 시설들은 사빠피스파들을 지지하지 않는 원주민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예를 들어 토호라발 밀림지대(Zona Selva Tojolabal)의 경우, 사빠피스파들은 산 호세 델 리오(San José del Rio)에 병원과 의학 관련 학교를 세웠다. 이곳은 라 레알리닷 지역에 있는 사빠피스파 자치지역으로, 1994년 이후 EZLN의 군 총 사령부가 주둔해 있는 곳이었다. 1999년부터 이곳의 병원은 네 개의 자치 무니시피오에 속해 있는 239개의 공동체들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기에서도 원주민들은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이곳의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 문맹인 원주민들을 위해서



〈오벤딕 가라몰 중등학교〉



〈오벤딕 가라몰 병원〉

필자 촬영(2007. 4.10)

의학에 관한 기본 상식을 병원 벽에다 그림을 그려 친절하게 알려줌으로써 원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는 놀라운 것이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자치 프로젝트는 교육에 관한 것이었다. 사빠디스마들은 공동체 생활과 학교 교육을 통합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원주민 공동체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참여적이고 포괄적인 교육 체제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사빠디스마들은 종래의 정부 교육 프로그램들

이 원주민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자치 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다. 종래의 정부 학교들과는 별도로 설립된 새로운 자치 학교들은 사빠띠스따 공동체들의 자치 과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지적 공간의 역할을 했다.

교육 프로젝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커리큘럼의 내용이 원주민의 언어와 원주민의 문화와 역사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수학, 영어, 과학, 문화, 예술, 보건, 체육 등 이른바 서구적인 지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사빠띠스따 학교에서는 종래의 정부 학교에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는 원주민의 언어와 역사를 가르쳤다. 이것은 원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언어와 역사를 가르침으로써 집단적인 정체성을 갖고 스스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이고자 한 것이었다. 사빠띠스따들은 원주민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원주민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게다가 사빠띠스따들은 게릴라 운동의 뿌리뿐 아니라, 통합(integración)이라는 주제로 사빠띠스따 투쟁의 맥락에서 그 투쟁의 의미와 더 나아가 원주민 운동의 역사와 의미에 관해서도 원주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다.

문제는 원주민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들이었다. 사빠띠스따들은 공동체에서 원주민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들을 외부의 비원주민 출신 교사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빠띠스따들은 까라꼴에 중등학교를 설립하여 외부 교사들을 초빙하고 무니시뻬오 초등학교에 파견할 교사들, 즉 교육 들을 양성했다. 예를 들어, 프란시스꼬 고메스 자치지역에서는 멕시코시티 출신인 FZLN 활동가가 그 지역의 원주민 교육 뿌로모뜨르들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담당했다(Barmeyer 2009, 166).

이처럼 사빠띠스따들은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들은 까라꼴에 기숙사까지 설립했다. 이것은 무니시뻬오들에서 오는 학생들이 먼 곳에서 오고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기숙사에서 단체생활을 하게 하면서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이었다. 기숙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까라폴에서 중등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고, 각자 무니시삐오로 돌아가서 원주민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오넨딕 까라폴의 중등학교의 경우 14-19세의 학생들이 모여서 3년간의 공부를 마친 뒤에 사빠띠스따 자치 무니시삐오로 돌아가서 교육 뿌로모뜨들이 되었다. 모렐리아 까라폴이 감독하는 알따미라노 지역(Zona Altamirano)에서는 자치교육이 다른 지역보다 더 앞서 있었는데, 공동체로 돌아간 공동체 교사들 280명이 지역 전체 2500명의 학생을 가르쳤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빠띠스따들은 산 안드레스 협정이 무효화되자 본격적으로 자치를 실현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자치 무니시삐오들에 자치 정부를 적극적으로 구성해나가고 자치지역을 재정비하여 5개의 까라폴을 조직했다. 거기에 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지역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고, 구체적으로 의료와 교육 등 자치 프로젝트들을 실행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원주민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사빠띠스따들은 종래의 정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타협도 거부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았다. 1994년 봉기 이후 산 안드레스 협정을 맺을 때까지만 해도 사빠띠스따들은 정부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원주민의 권리와 자치를 법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자 결국 배타적이고 독자적인 노선을 취하게 되었다.

V. 결론

멕시코 원주민들의 자치를 위한 투쟁의 역사는 길다. 식민지시대부터 원주민들은 빼앗긴 자신들의 자율성을 되찾으려고 지난한 투쟁을 벌였다. 멕시코 혁명 당시 사빠따가 아얄라 강령에서 주장했던 것도 “토지와 자유”였다. 치아빠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토호라발족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자치를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86년 토호라발족은

자치지역을 선포하고 거기에 자치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오랜 원주민의 자치를 위한 운동의 맥을 이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오래가지 못하고 1989년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1994년은 분명히 치아빠스 원주민의 자치운동에서 중요한 해였다. 사빠띠스파들의 봉기가 원주민의 자치운동에 새로운 불씨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1994년 10월 치아빠스 민중민주회의(ADEPCH)가 북부의 7개 지역을 복수종족 자치지역을 선포하면서 본격적으로 원주민의 복수종족 자치지역운동(RAP)을 벌여나갔다. 그리고 1995년 2월부터 7차례에 걸쳐 ANIPA가 열렸다. 이 회의는 복수종족 자치지역운동에 이론적 틀을 제공한 셈이다. ANIPA는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적인 관습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원주민의 자치를 인정할 것과 원주민의 지역 자치체제의 확립을 요구했다. 원주민들이 요구했던 자치는 국가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국가 속으로의 통합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국가는 종래의 백인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종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의 집단으로서 원주민을 국민으로 인정하는 국가였다. 따라서 RAP과 ANIPA의 자치운동은 단순히 종래의 국가로 포섭되려는 탈중앙집권적인 운동이 아니라 종래 국가의 틀을 바꾸고 변화된 국가 체제 속에서 하나의 정치적 공간을 당당하게 차지하고자 하는 운동이었다.

사빠띠스파들도 제3차 선언에서 처음으로 자치를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치운동에 뛰어들기 시작했을 때 종래의 이러한 원주민의 자치운동의 이념을 이어갔다. 사빠띠스파들은 “우리는 원주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멕시코인이다”를 외치며 원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토대로 한 원주민의 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멕시코 국민으로서 원주민의 시민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1996년 원주민 포럼에서 합의된 내용도 멕시코 국민의 통합을 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치였다. 그래서 사빠띠스파들은 정부와의 협상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와의 협상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산 안드레스 협정에서 원주민의 자치가 최소화되고 원주민의 법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더구

나 이러한 한계를 지닌 산안드레스 협정조차도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의회에서 통과된 COCOPA법은 원안과는 많이 다른 것으로, 원주민의 자치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그동안 원주민의 자치를 위한 사빠띠스파들의 투쟁이 물거품이 된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사빠띠스파들은 지금까지 정부에 기대를 걸면서 협상을 벌였던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정부의 어떠한 도움이나 간섭도 배제한 채 자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사빠띠스파들은 종래의 정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타적인 입장을 취했다. 먼저, 사빠띠스파들은 1995년부터 이미 시작된 자치정부 구성 작업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가기 시작했다. 2003년에 사빠띠스파들은 자치지역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5개의 까라콜을 설치하고 거기에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더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치지역을 관리해나갔다. 법 체제를 정비하여 원주민들이 법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의료, 교육에 관한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원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강과 지식을 제공하려고 했다. 이것은 원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었다.

이렇게 볼 때 사빠띠스파의 자치운동은 RAP과 ANIIPA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빠띠스파의 자치운동은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변함에 따라 좀 더 배타적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2003년 이후 그 어느 자치운동보다도 더 활발하게 자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유지했다. 애초에 사빠띠스파들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자치가 분리가 아니라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이전의 지역자치운동들이나 ANIPA가 주장했던 자치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2003년 이후 사빠띠스파들은 철저히 비타협적인 태도로 자치를 실현해나갔다. 사빠띠스파 자치지역은 원주민들만의 세상이 되었다. 그것은 사빠띠스파들이 주장해 온 또 다른 세계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사빠띠스파들이 꿈꾸는 것은 국가라는 “하나의 세계” 안에 원주민의 세상 같은 “또 다른 세계”들이 공존하는 세상이다. 멕시코

정부는 이러한 “또 다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500여 년 간 계속되어 온 식민성을 거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빠피스따들의 자치 투쟁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봉기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원주민의 자치운동을 계승하여 원주민의 자치를 지역 차원에서 실현하고 유지하면서 종래의 식민적 지배질서를 철저히 거부하는 것으로 발전해나갔다는 점이다. 작년 마지막 날에 사빠피스따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전개한 운동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앞으로 이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 운동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신식민 질서를 거부하는 멕시코의 민중뿐 아니라 세계 시민사회들과의 연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현(2012), 『라틴아메리카 인종과 정치』, 한국학술정보.
- 김윤경(2008), 「멕시코의 사빠피스따운동: 새로운 세계를 향한 원주민 운동」, 서양사론, 97.
- _____ (2011), 「외채위기 이후 멕시코 치아빠스 원주민의 개종: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티즘으로」, 역사문화연구, 39.
- 마르코스 외(2004), 『계릴라의 전설을 넘어』, 박정훈 엮음, 생각의 나무.
- 미할리스 멘티니스(2006), 『사빠피스따의 진화』, 서창현 역, 갈무리.
- 조정환(2003), 『아우또노미아』, 갈무리.
- 주종택(2012), 『라틴아메리카의 종족성과 신사회 운동』, 한국학술정보.
- Arias, Jacinto(1990), “Movimientos indígenas contemporáneos del estado de Chiapas,” Jacinto Arias(ed.), *El arreglo de los pueblos indios: La incansable tarea de reconstitución*, México: 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 pp. 379-99.
- Automedia(1995), *Ya basta! Documentos on the New Mexican Revolution*, New York: Automedia.
- Barmeyer, Niels(2009), *Developing Zapatista Autonomy: Conflict and NGO Involvement*

- in Rebel Chiapas*,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 Benjamin, Thomas(1989), *A Rich Land, a Poor People: Politics and Society in Modern Chiapas*,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Burguete Cal y Mayor, Araceli(1987), *Chiapas: Cronología de un etnocidio reciente(Represión política a los indios, 1974-1987)*, Mexico City: Academia Mexicana de Derechos Humanos. A.C.
- Burguete Cal y Mayor, Araceli(ed.)(1999), *México: Experiencias de autonomía indígena*, Documento IWGIA No. 28, Copenhagen: IWGIA.
- _____(2002), *Indigenous Autonomy in Mexico*, Somerset, N.J.: Transaction Publishers.
- CEOIC(Consejo Estatal de Organizaciones Indígenas y Campesinas)(1994), “CEOIC: Propuesta para la creación de las Regiones Autónomas Pluriétnicas,” *Revista Motivos*, 8.
- Collier, George A.(1999), *Basta! Land and the Zapatista Rebellion in Chiapas*, Revised Edition(original 1994), Oakland, Calif.: Food First Books.
- Díaz-Polanco, Héctor(1991), *Autonomía Regional: la Autodeterminación de los Pueblos Indios*, México: Siglo XXI.
- _____(1992), “El Estado y los Indígenas,” Jorge Alonso y Alberto Aziz Nassif(ed.), *El Nuevo Estado Mexicano: Estado, Actores y Movimiento Sociales*, Vol. 3, Guadalajara: Universidad de Guadalajara; México: Nueva Imagen.
- _____(1997), *Indigenous Peoples in Latin America: The Quest for Self-Determination*, Lucía Reyes(trans.), Boulder: Westview Press.
- _____(1998), *La rebelión Zapatista y la Autonomía*, México: Siglo XXI.
- Estrada Saavedra, Marco(2007), *La Cominidad Armada Rebelde y el EZLN: Un Estudio Histórico y Sociológico osbre las Bases de Apoyo Zapatistas en las Cañadas Tojolabales de la Selva Lacandona(1930-2005)*, Mexico City: El Colegio de México, Centro de Estudios Sociológicos.
- González, Miguel, Araceli Burguete Cal y Mayor y Pablo Ortiz-T (coord.)(2010),

La autonomía a debate: Autogobierno indígena y Estado plurinacional en América Latina, Quito: FLACSO.

Hamilton, Nora(1982), *The Limits of State Autonomy, Post-Revolutionary Mexico*,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Harvey, Neil(1998), *The Chiapas Rebellion: The Struggle for Land and Democracy*,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Hernández Castillo, Rosalva Aída(2001), *Histories and Stories from Chiapas: Border Identities in Southern Mexico*,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Hernández Cruz, Antonio(2000), “Tojolab’al Autonomy: The Genesis of a Process,” González, Miguel, Araceli Burguete Cal y Mayor y Pablo Ortiz-T (coord.) (2010), *La autonomía a debate: Autogobierno indígena y Estado plurinacional en América Latina*, Quito: FLACSO.

Hernández Navarro, Luis, y Ramón Vera Herrera(1998), *Acuerdos de San Andrés*, México: ERA.

Higgins, Nicolas(2004), *Understanding the Chiapas Rebellion: Modernist Visions and the Invisible Indian*,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Katzenberger, Elaine(ed.)(1995), *First World, Ha Ha Ha! The Zapatista Challenge*, San Francisco: City Lights Books.

Klein, Hialry and Gustavo Castro(2001), “Autonomy and Health in Zapatista Communities, Chiapas” al Día 228, Centro de Investigaciones Económicas y Políticas de Acción Comunitaria(CIEPAC), January 17. <http://www.ciepac.org/boletines/chiapasaldia.php?id=228>(accessed December 17, 2002)

López y Rivas, Gilberto(2004), *Autonomías: Democracia o Contrainsurgencia*, México: ERA.

Mattiace, Shannan L.(2001), “Regional Renegotiations of Space: Tojolabal Ethnic Identity in Las Margaritas, Chiapas,” *Latin American Perspectives*, 28(2), pp. 73-97.

- _____(2003), *To See with Two Eyes: Peasant Activism and Indian Autonomy in Chiapas*, Mexico, Albuquerque, N.M.;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Mattiace, Shannan L., Rosalva Aida Hernández Castillo y Jan Rus(eds.)(2002), *Tierra, Libertad y Autonomía: Impactos Regionales del Zapatismo en Chiapas*, México: CIESAS.
- Medina, Andrés(1977), “Los Indios,” Salomón Nahmad(ed.), *Siete ensayos sobre Indigenismo*, Mexico City: Instituto Nacional Indigenista.
- Mondesi, Massimo, “Subalternidad, antagonismo, autonomía, Marxismos y subjetivación política,” en *Cuadernos del Pensamiento Crítico Latinoamericano*. No. 34, CLACSO, septiembre de 2010.
- Muñoz Ramírez, Gloria(2003), *20 y 30: El Fuego y la Palabra*, México: Revista Rebeldía.
- Nash, June(2001), *Mayan Visions, The Quest for Autonomy in an Age of Globalization*, New York: Routledge.
- Ramírez Cuevas, Jesús(2003), “La Fiesta de los Caracoles, la Autonomía Indígena, Basada en los Incumplidos Acuerdos de San Andrés,” *La Jornada, August 9*.
- Regiones Autónomas Pluriétnicas(RAP)(1995), “Regiones Autónomas Pluriétnicas: Una propuesta hacia la autonomía indígena,” *Revista VEMOS-Memoria*, 76.
- Ross, John(1994), *Rebellion from the Roots: Indian Uprising in Chiapas*, Monroe, Maine: Common Courage Press.
- _____(2006), *Zapatistas!: Making Another World Possible Chronicles of Resistance 2000-2006*, New York: Nation Books.
- Ruiz Hernández, Margarito, y Araceli Bргуete Cal y Mayor(2003), *Derechos y Autonomía Indígena: Veredas y Caminos de un Proceso; Una Década(1900-1998)*, México: Comisión Nacional para el Desarrollo Indígena.
- Rus, Jan, Rosalva Aída Hernández and Shannan L. Mattiace(eds.)(2003), *Mayan Lives, Mayan Utopias: The Indigenous Peoples of Chiapas and the Zapatista*

Rebellion,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Speed, Shannon and Jane F. Collier(2000), “Limiting Indigenous Autonomy in Chiapas: the State Government’s Use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22, pp. 877-905.

Stephen, Lynn(2002), *Zapata Lives! Histories and Cultural Politics in Southern Mexico*.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omack, John(ed.)(1999), *Rebellion in Chiapas: An Historical Reader*, New York: New Press.

김윤경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yella@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3년 3월 18일

심사완료일: 2013년 4월 1일

게재확정일: 2013년 4월 9일

The Indigenous Movement for Autonomy in Mexico: Focused on the Zapatista Movement.

Yoon-Kyung Kim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Yoon-Kyung(2013), The Indigenous Movement for Autonomy in Mexico: Focused on the Zapatista Movement.

170

171

Abstract This article tries to analyse the meaning of the indigenous movement for autonomy focused on the Zapatista movement. At first, the Zapatista struggle was an extension of RAP and ANIPA movement. However, the Zapatista movement became to take a cold attitude toward government over time. After 2003, the Zapatistas accomplished an autonomy through autonomous programs in Zapatista autonomous zone. Eventually the aim of Zapatistas was to bring about the world where various worlds coexist. But, Mexican government didn't acknowledge "el otro mundo" like the indigenous world, since it meant to refuse coloniality which had lasted for about five hundred years. Therefore, the Zapatista movement is the indigenous struggle for de-coloniality. The important significance of the Zapatista rebellion is the realization of the indigenous autonomy, succeeding the former indigenous movement and the refusal of the colonial dominant order.

Key words Zapatista, Indigenous people, Autonomy, RAP, Acuerdos de San Andrés